

달아오른 박병호, 둉달아 홈런 레이스도 불 타올라

‘익숙한’ 4번 타순 자리 옮기면서 불방망이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33)의 물이치기가 시작됐다. 홈런왕 레이스도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박병호는 지난달 30일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경기에서 4회 상대 선발 브룩 디아슨에게 원 담장을 넘어 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시즌 7호포이자 3경기 연속 대포다.

익숙한 4번 타순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방망이에도 불이 붙는 모양새다. 장정석 키움 감독은 타선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을 시즌 박병호를 주로 3번으로 배치했다.

하지만 3번 타자로 나선 박병호는 타율 0.288(66타수 19안타) 2홈런 9타점에 머물렀다. 박병호에 대한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달 25일 두산 베어스전부터 다시 4번으로 나서면서 방망이도 더 날카롭게 돌아가고 있다. 박병호는 4번 타자 복귀 후 5경기에서 타율 0.345(22타수 12안타)

를 기록했다. 김을 잡으며 장기인 물이치기도 나온다. 개막 후 22경기에서 3개의 홈런만 수확했던 박병호는 최근 5경기에서 4개의 대포를 터뜨렸다.

박병호의 페이스가 점점 올라오는 시점도 됐다. 이전까지 박병호의 타격 사이클을 보면 시즌 초반은 다소 잠잠하다가 5월부터 집중타를 날렸다.

지난해도 4월까지 18경기에서 4홈런에 그쳤지만, 5월 10경기에서 5홈런을 쳤고 6월(25경기)과 7월(22경기)에는 각각 8홈런, 9홈런을 뽑아냈다.

미국 진출 전인 2015년에도 4월까지 25경기 8홈런을 그렸던 박병호는 5월(27경기)과 6월(21경기)에는 9홈런씩을 때렸다. 2014년도 마찬가지다. 4월까지 24경기 6홈런에서 5월 24경기 14홈런으로 폭발했다.

박병호의 가세로 미지근하던 홈런 레이스에도 불이 붙고 있다. 4월30일까지 김재환, 페르난데스(이상 두산), 양의지(NC 다이노스)가 박병호와 함께 홈런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상위권 팀들이 시즌 초반 출발한 순위표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거포들의 홈런 레이스는 순위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재환은 지난 시즌 44홈런으로 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올 시즌도 유력한 홈런왕 후보다.

페르난데스는 KBO리그 데뷔 첫 해인 올 시즌 타율 1위(0.392)를 달리며 순항하고 있다. 큰 약점이 보이지 않는 데다 최근 10경기에서 4홈런을 뽑아내는 등 장타력도 과시 중이다.

지난해까지 두산에서 뛰다 올해 NC에서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 양의지의 홈런 생산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23홈런으로 자신의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기록했던 양의지는 올 시즌 이미 7홈런을 썼다.

뉴시스

지역공감 미래상조 정관직물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제17회 동광양농협장기 게이트볼대회 ‘성료’

우승 우보 A팀 · 준우승 용지 A팀…공동 3위 태금 클럽 · 우보 D팀

제17회 동광양농협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지난 달 30일 광양시 종동 우보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이명기(동광양농협)조합장은 대회사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인기 종목의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이 우리 농협의 행복이다.”고 말하고 “오늘도 승부에 연연하기보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종필(광양시 게이트볼협회)회장 격려사에서 “동광양농협이 오늘로 17년째 게이트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이런 뜻 깊은 대회에 출전한 동호인 여러분들은 개인과 클럽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길고 단단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동광양시 게이트볼



우보 A팀 선수와 회원들이 우승 시상을 마치고 이명기(동광양농협)조합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클럽 12개 팀이 출전, 선수 입원 200여 명이 참석해 예선 풀 리그전을 거쳐 본선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렸다.

결승전에서는 지난해 우승 팀인 용지 팀과 우보 A팀이 접전 끝에

우보 A팀(전세영 주장, 김용훈, 김명수, 이근만, 박준자 선수)이 결국 용지 팀을 꺾고 영광의 우승을 차지해 우승기와 부상은 함께 거머쥐었다.

광양=김승호 기자

이치로, 지도자로
제2의 야구 인생
시애틀 마이너리그팀



32강전에서는 랭킹 28위 대니얼 하비슨(오스트리아)을 꺾었다. 16강에 선 일본의 타구 천재이자 세계랭킹 4위인 하리모토 도모카즈를 꺾었다.

8강서 무너뜨린 대표팀 동료 장우진 또한 세계랭킹 10위의 강자다.

지난해 코리아오픈 3관왕과 ITTF 그랜드 페어널스 복식 월드컵에서 만연한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세계랭킹 157위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밀린다는 평을 뒤집어 더욱 극적이었다.

이번 대회의 선전으로 순위도 수직 상승했다. 안재현은 ITTF가 30일 발표한 5월 세계랭킹에서 종전 157위보다 84계단 오른 73위에 자리했다.

전설적인 타자 스즈키 이치로(46)가 지도자로 나선다. 미국 메이저 리그 시애틀 매리너스는 1일(한국시간) 이치로가 트리플A 팀 타코마 레이너스의 인스트럭터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 외신도 이치로의 변신에 대해 일제히 보도했다.

이치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에게 타격, 주루, 외야 수비를 지도한다.

일본프로야구 오리스 블루웨이브스(현 오리스 버펄로스)에서 활약하다가 2001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치로는 첫 해부터 타율한 타격감을 선보이며 신인왕과 MVP를 거머쥐었다. 전무후무한 10년 연속 200타비를 달성했고 통산 308안타를 달성했다. 미일 통산 4367개의 안타를 끄려낸 불세출의 선수다.

이치로는 지난 3월 은퇴를 선언했고 지도자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한다.

쉽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자연 으뜸
지리산 구례